

안전하고 밝은 오토바이문화 선도해나갈 터

— 연변사계절오토바이운전사학교 김문호 교장을 만나



“불과 20년전만 해도 오토바이는 나들이를 위한 교통수단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생활형편이 바뀌고 또 절주가 빠른 현대생활에서 레저와 오락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지금은 오토바이를 애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요.”

연길시사계절오토바이운전사학교 김문호 교장의 말이다. 지금 운전면허를 따려고 그의 오토바이운전사학교에 찾아오는 사람들중 열에 아홉은 자가용을 몰고 와서 공부한다. 그만큼 오토바이를 배우는 목적이 나들이보다는 생활을 즐기려는 데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오토바이를 문하라치면 김문호 교장은 전문가이다. 그만큼 그는 어려서부터 오토바이를 좋아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은 오토바이운전사학교는 물론 지역 오토바이 애호가들로 무어진 ‘연변표범’ 오토바이구락부를 설립하고 있다.

1985년, 16살 나던 해 김문호는 참군했는데 당시는 오토바이가 많지 않던 시절이라 지방 근무중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타고 싶어서 초면임에도 사정사정해서 빌어타보면서 일찍 오토바이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김문호 교장은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레포츠는 독특한 레저 방식으로 점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오토바이가 사람들에게 속도와 열정의 체험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대자연과 친근하게 접촉하고 압력을 방출하면서 자유를 향수하게 하기 때문이다. 오토바이 질주의 매력은 바람과의 거친 포옹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면서 오토바이가 내는 엔진의 굉음과 함께 바람이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것이다. 이런 바람과의 친밀한 접촉은 번뇌를 잊



▲ 군인시절 오토바이를 타면서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운 김문호씨

고 자유의 기쁨에 잠기게 한다고 김문호 교장은 말했다.

김문호 교장에 따르면 오토바이 질주는 또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색 방식의 하나이기도 하다. 산맥, 삼림 또는 들판을 가로질러 다른 풍경을 음미할 수 있는, 한번도 가보지 못한 로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다 보면 각양각색의 도로 상황과 여러가지 도전에 부딪치게 된다. 이는 오토바이를 다루는 기교와 반응 능력을 단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돌파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김문호 교장은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개 3개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오토바이를 운전해 서장이나 신강 등 장도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과 그냥 속도와 스릴을 즐기는 젊은층들, 그리고 길도 없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야의 탐색을 즐기는 사람들 등이다.

일부 사람들에게 오토바이 타기는 일종의 사고 활동이기도 하다. 오토바이 애호가들은 주말이면 함께 만나 새로운 곳을 찾아 탐험하고 서로의 라이딩 경험과 이야기를 공유한다. 이런 사고 상호작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아의 힘과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돌보는 뜻을 같이하는 친구들도 사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스포츠키모터씨클링협회 길림지역 리사이기도 한 김문호 교장은 연변의 오토바이 애호가들을 조직해 지난 2015년에는 연변에서 처음으로 되

는 숲길 장애물 오토바이경기를 조직하기도 했으며 2016년에도 오토바이경기를 후원해 조직하기도 했다.

김문호 교장에 따르면 천하의 오토바이 애호가들은 모두 한집안 식구와 같다.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지 오토바이 애호가들 사이의 인터넷 교류가 쉬워지면서 서로서로 도움이 필요하면 지역이나 민족에 상관없이 가능한 한 상대 지역에 찾아온 오토바이 애호가들에게 최대의 도움과 편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불문율이기 때문이다.

몇해전 ‘연변표범’ 오토바이구락부 회원들은 흑룡강성 변경선을 따라 훈춘에서 흑룡강성 막까지 가는 장거리 코스를 조직했는데 연도에 있는 수분하, 계서, 오대련지, 흑하, 막하 등 지역 오토바이 애호가들로부터 장도코스 계획이며 류숙, 음식, 도로 상황 등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물론 연변을 찾아온 전국의 오토바이 애호가들에게도 당지의 오토바이 애호가들은 다른 지역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최선



▲ 천하의 오토바이 회원들은 모두 한집안

의 봉사과 따뜻한 도움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김문호 교장은 말했다.

오토바이를 타는 데는 뽀니뽀니해도 안전이 제일이라고 김문호 교장은 강조한다. 오토바이는 빠른 속도와 스릴을 즐길 수는 있지만 잘못된 안전 상식이나 요령으로 순간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안전우환을 가지고 있기에 특히 안전운행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년간 그는 적잖은 지인들이 잘못된 오토바이 운전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불구로 되는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많이 보아왔다. 김문호 교장은 오토바이 안전에 대한 홍보를 위해 지난 2016년에 비영리성 공식협회인 ‘연변표범’ 오토바이구락부를 설립하였고 앞장서 연변텔레비전방송이며 연길라지오방송에도 출연했다.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헬멧, 보호구 등을 포함한 적절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반드시 교통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좋은 운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김문호 교장은 강조했다. 현재 연길시에서 하루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70% 이상이 오토바이와 관련된 사고라는 점에서만 보아도 오토바이의 안전 운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김문호 교장은 강조했다.

김문호 교장에 따르면 현재 ‘연변표범’ 오토바이구락부에는 200여명의 오토바이 애호가들이 있는데 김문호 교장을 주축으로 안전하고 밝은 지역 오토바이문화를 선도해나가면서 올바른 오토바이문화가 우리 지역에 자리잡도록 힘쓰고 있다.

“오토바이 레포츠는 신체와 정신을 단련하고 슬기롭고 용감하며 완강하고 양호한 작풍을 양성할 수 있어 이미 세계 각국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운동종목이 되었습니다.”

김문호 교장은 오토바이운동은 매력적이고 도전적이라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자유를 추구하며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의기투합하는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기에 갈수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환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안상근기자

[전면대]

연변룡정팀

동계훈련지 옥계에서 16 점 노린다



▲ 흑룡강방성팀과의 경기에서 연변룡정팀 로난선수가 헤딩슛을 날리고 있다. 로난선수는 제 9 라운드 최우수선수에 당선되었다. / 김파기자

홈장에서 3:2로 흑룡강방성팀을 제압한 연변룡정팀 (이하 ‘연변표’)이 5월 12일 19:30에 운남성 옥계시 옥계고원체육운동중심체육장에서 현재 6승 2무 1패 20점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운남옥곤팀과 만나 상대의 홈장불패 기록에 도전장을 던진다.

2021년에 설립된 운남옥곤팀은 2022년에 중국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2023 올림피아드 자격을 획득, 2023년에 올림피아드 3위로 갑급리그에 보충 승격된 팀으로 올해 슈퍼리그에 진출하면 말 그대로 ‘3단뛰기 선수’가 되는 것이다.

지난 5월 1일에 있는 제 7라운드 보충경기에서 광서평과하료팀에 0:1로 패하면서 2위로 밀렸지만 대련영박팀이 홈장에서 광주팀에 패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5월 4일 제 9라운드 경기에서 청도홍사팀을 3:2로 꺾으면서 다시 1위 고지를 탈환했다. 운남옥곤팀은 지난해 올림피아드 예선과 승격조 경기에서 11경기 홈장불패 기록을 세운 팀으로 올해 4경기까지 합하면 이미 15경기 홈장불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만만치 않은 팀이다.

운남옥곤축구구락부는 올 시즌을 앞두고 겨울철 이적시장에서 대련인팀과 절강팀에서 뛰었던 무쉐쿠이(30번), 로르니아와 화란의 갑급리그에서 활약하던 알렉산드로(10번)와 라바야드(9) 등 3명의 용병과 하남팀, 무한삼진팀, 장춘아태팀에서 활약하던 조우호(6번), 라경(7번), 이등(18번), 호북축구협회 청소년 훈련학원의 U17 국가대표팀 문지기 요호양(1번)을 새로 영입하였는데 이 6명은 현재 운남옥곤팀의 절대적인 주력으로 경기장을 누비고 있다.

그중 중국 프로축구에서 총 103골을 선사시킨 무쉐쿠이는 이미 6골 1도움, 라바야드는 2골 2도움, 알렉산드로는 2골 1도움, 라경은 1골 2도움을 기록했으며 애송이 문지기 요호양은 3월 23일 제 3라운드 경기에서 흑룡강방성팀 이타노의 페널티킥을 막아내면서 운남옥곤팀이 3:0으로 상대를 격파하는 데 큰 공로를 세웠다.

총체적으로 운남옥곤팀은 수비, 조직, 공격 3선 선수층이 두텁고 ‘잘 잘 당기는 감독’ 리금우의 타당한 지휘로 전 9라운드 경기에서 2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따낼 수 있었다. 그러나 자세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기실 운남옥곤팀이 이미 만난 적수들중 중경동량팀, 광서평과하료를 제외한 기타 팀들은 상대적으로 실력이 약한 팀들이다. 그리고 17세인 요호양을 포함해서 출전 선수 평균연령이 29.8세 이상에 달한다는 점은 로장들의 체력 소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충분히 암시해주고 있다.

거기에 최근 운남옥곤팀의 경기 일정이 피곤하다. 4월 27일 홈장에서

서 강팀 중경동량팀과 겨루고 5월 1일에 광서에 가서 제 7라운드 보충경기를 치르고 또다시 5월 4일에 급급히 청도에 날아와 청도홍사팀과 제 9라운드 경기를 펼쳤는데 주장 조우호가 입술이 터지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리는 등 치열한 경기를 통해 3:2로 승점을 거두었지만 선수들의 체력은 탈진상태이다.

연변표팀이 홈장에서 유유히 두 경기를 치르는 동안 운남옥곤팀은 한개 홈장, 두개 원정경기를 소화해야 했다는 말이다. 거기에 앞으로의 일정도 운남옥곤팀에 매우 불리한바 17일 축구협회컵 경기로 대련에 다녀왔다가 25일에 다시 상해에 날아가야 하는 반면, 연변표팀은 경기를 마치고 상해에 들러 15일에 축구협회컵 경기를 치르고 홈장에 돌아와 폭 쉬다가 25일 약탈인 강서려산을 만나게 되는데 운남옥곤에 비해 매우 편한 일정이 아닐 수 없다.

공격수 출신인 리금우는 지난 시즌부터 팀을 이끌었는데 구락부와 선수들에게 위신이 상당히 높으며 지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격 위주의 축구를 선호하며 일반적으로 4-4-2 진영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양한 전술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전 9라운드 경기에서 4-4-2 진영을 6차, 4-3-3, 4-2-3-1, 4-3-1-2 진영을 각 1차례 들고나온 것을 보면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한 공격축구가 운남옥곤팀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연변표팀은 운남옥곤팀과의 경기를 앞두고 지난 대련영박팀과의 경기를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두 팀이 거의 비슷한 전술체계의 축구를 하는데다 선수들의 평균연령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일단 충분한 병력과 대인방어로 수비를 튼튼히 하는 동시에 로장들이 많은 상대팀 약점을 리용하여 짧고 빠르며 정확한 패스를 통해 그들이 지치게끔 치열한 접전을 벌여야 한다. 일단 상대가 지치기 시작하면 리세빈, 왕박호와 로난을 동원하여 상대 풀문을 괴롭혀야 하며 상황에 따라 허문광, 리달, 현지건 등 젊고 빠른 선수들로 체력 소모가 엄중한 로장들을 교체 출전시켜 경기 흐름을 장악해야 한다.

지난 2023 시즌 전 10라운드 경기 후 연변표팀은 4승 4무 2패로 16점을 기록하고 7위를 차지하였었는데 올 시즌에 작년과 같은 성적을 거두려면 반드시 운남옥곤을 이겨야 하는 상황이다.

빡빡한 경기 일정에 지친 운남옥곤을 상대로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연변축구 정신과 강팀에 더욱 강한 개성을 남김없이 보여준다면 19경기 홈장불패를 자랑하는 우리 연변표팀이 현재 1위인 운남옥곤을 끌어내리고 또 홈장불패의 기록도 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 김태국기자

우리의 명절과 기념일

국제간호사절은 력사상 유명한 간호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1820년 5월 12일에 태어난 나이팅게일은 19세기 중엽 영국이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뛰어난 관리재능과 헌신으로 간호사업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나이팅게일은 과학적인 간호를 제창하고 병원 관리 체계를 개혁하여 간호사업과 간호인력의 사회의 존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이팅게일은 크림(克里米亞) 전쟁 당시 간호장교로 일하면서 38명의 간호사들과 함께 최전선에서 사업하였는데 부상자 사망률을 2.2%에서 0.6%로 줄였다. 이 업적으로 그녀는 ‘등불을 든 여인’으로 칭송받았고 후세에 널리 알려지고 존경받았다. 1912년 국제간호사리사회에서는 나이팅게일을 기념하기 위해 그녀의 생일인 5월 12일을 국제간호사절로 제정하였다.

간호사절을 정한 목적은 나이팅게

간호사절의 유래와 의의

— 신기덕 —

일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봉사하며 용감하게 헌신하는 인도주의 정신을 옹호하고 선전하며 계승하려는 것이다. 간호사절의 제정은 간호사업에 대한 간호사의 노력과 공헌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간호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 사회적인 지위를 높여주려는 것이다. 이날 사람들은 간호사들의 헌신을 축하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간호사절의 제정은 의료보건계통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강조와 그들의 로고와 헌신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이 축제는 나이팅게일을 기리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직업적 가치와 인간의 건강을 제고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간호사절은 간호 분야의 전문정신과 인문학적 배려를 옹호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는 간호사들의 애심, 내심, 세심, 책임임을 불러일으켜 이런 마음을 안고 환자들을 대하게 한다. 간호사절은 또한 간호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고 간호사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플랫폼이기도 하다.

간호사절의 기념행사에는 학술교류, 세미나, 우수간호사 표창 등 활동들이 포함되며 간호계의 단합과 협력을 강화하고 간호학의 발전을 촉진하며 간호사업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인식을 더욱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세계적으로 간호사절은 많은 국가와 지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행사로 되었다.

글의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

이팅게일의 일화 한가지를 간단히 소개한다. 그는 1820년 5월 12일 이탈리아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1910년 8월 13일에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젊었을 때 일기에 이렇게 썼다. “나에게는 세갈래의 길이 놓여있는데 하나는 문학가로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순수한 가정주부로 되는 것이며 마지막 하나는 간호사로 되는 것이다.” 결국 그는 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견대로 간호사로 되었던 것이다.

